

## 박지성 킬패스... '첼시 격침' 35초 걸렸다

시즌 5호 도움... '만점 활약'  
 맨유 2-1 승 리그 우승 예약



“램퍼드, 끌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9일 새벽 맨체스터의 올드트래퍼드에서 열린 2010-2011 정규리그 36라운드 홈 경기에서 첼시의 프랭크 램퍼드와 볼을 다루고 있다. /연합뉴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라이벌' 첼시를 꺾고 역대 최다인 통산 19번째 정규리그 우승 목표에 '9부 능선'을 넘었다.

맨유는 9일(한국시간) 새벽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트래퍼드에서 열린 2010-2011 정규리그 36라운드 홈 경기에서 전반 35초 만에 터진 허비에르 에르난데스의 선제골에 이어 전반 23분 네마냐 비디치의 결승골을 앞세워 후반 24분 프랭크 램퍼드가 한 골을 만회한 첼시를 2-1로 물리쳤다.

'산소탱크' 박지성(30)은 왼쪽 날개로 선발출전해 풀타임을 뛰는 동안 에르난데스의 선제골에 도움을 주면서 시즌 5호 도움을 작성하는 '만점 활약'을 펼쳤다.

이로써 박지성은 이번 시즌 정규리그(4골 2도움)와 컵 대회(커뮤니티실드 포함 2골 2도움), 유럽 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1골 1도움)를 합쳐 12개(7골 5도움)의 공격포인트를 기록하게 됐다.

더불어 22승10무4패(승점 76)가 된 맨유는 2위 첼시(21승7무8패·승점 70)와의 승점 차를 6점으로 벌려 남은 2경기 중에서 승점 1점만 보태도 정규리그 우승 트로피를 차지한다.

박지성은 말 그대로 필살기 날았고, 결승골의 첫 시발점이 됐다. 박지성은 킥오프와 동시에 전반 30초

만에 중앙선 부근에서 볼을 잡아 전방으로 쇄도하던 에르난데스에게 정확한 스투패스를 찔러줬다.

박지성의 볼을 받은 에르난데스는 첼시의 수비수 데이비드 루이스를 제치고 페널티지역 중앙에서 가볍게 결승골을 뽑아냈다.

기본 좋은 시즌 5호 도움을 작성한 박지성은 전반 22분 왼쪽 측면에서 볼을 잡아 수비수를 제치고 베파락같은 오른발 중거리슛을 시도한 게 골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아쉽게 시즌 8호골을 놓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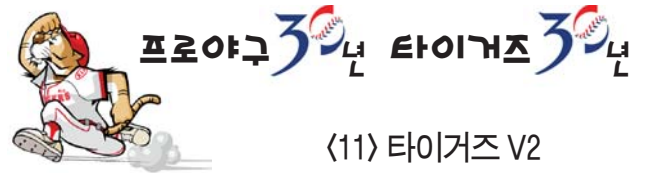
하지만 박지성은 곧바로 이어진 코너킥 기회에서 라이언 깁스와 원터치 패스를 주고받았고, 볼을 받은 깁스가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자 비디치가 골대 정면에서 헤딩으로 추가골을 만들어 일찌감치 맨유의 승리를 예고했다.

첼시는 후반 24분 하미레스가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가 이바노비치의 머리에 맞고 떨어지는 순간 램퍼드가 골대 왼쪽에서 순간적으로 발을 뻗어 추격골을 만들었다.

하지만, 맨유는 첼시의 막판 공세를 효과적으로 막아내 2-1 승리를 지키고 정규리그 우승을 예약했다.

한편, 영국 BBC와 스포츠전문채널 스카이스포츠는 이날 박지성을 주간 베스트11 격인 '팀 오브 더 위크(Team of the week)'의 왼쪽 미드필더로 뽑았다. 박지성은 또 평점 8점을 받았다.

BBC는 “끊임없는 움직임이 보여지며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고 박지성을 평가하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이타적인 선수라고 극찬했다. /연합뉴스



한국프로야구 1986시즌 포스트 시즌 진출방식은 전년도 가을축제를 무산시켜버린 삼성 라이온즈 때문에 또다시 제도가 바뀌었다.  
 전·후기 모두 2위 안에 들면 한국시리즈에 바로 진출하고, 전·후기 중 한 번만 2위 안에 들면 플레이오프를 거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최대 수혜자는 해태 타이거즈였는데 해태는 이러한 방식으로 3연패를 하게 된다.  
 1986년 해태는 전·후기 모두 2위를 차지하여 한국시리즈에 직행했고, 전·후기 각각 1위인 삼성 라이온즈와 OB 베어스가 플레이오프를 치렀다.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치러진 플레이오프전서 삼성은 OB를 3승2패(1-0, 3-5, 0-2, 2-1, 7-3)로 꺾고 한국시리즈에 진출했다.  
 무등경기장에서 펼쳐진 한국시리즈 1차전서는 해태가 연장11회말 2사 후에 김시진을 상대로 중견전사타를 터뜨린 김성현의 끝내기안타로 삼성을 4-3으로 누르고 기선을 제압했다. 2차전은 김일광과 이해창이 투타에서 활약한 삼성이 2-1승을 거두고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려놓았다.

### 김정수 KS 3승 '가을 까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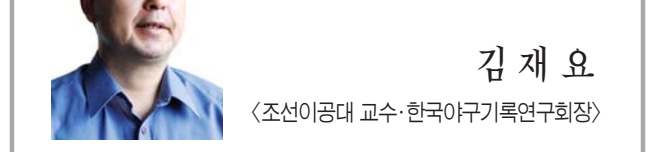
대구로 옮겨 치러진 3차전은 해태가 타격전 끝에 6-5로 신승을 거두었는데, 이 과정에서 1차전 패인이 광주 관중이 던진 병에 진동한 투수가 다쳐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 대구 관중들이 해태 선수단 버스를 방해해 전소시켜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과열 양상에도 불구하고 4차전은 대구에서 강행되었고, 해태는 연장 11회초에 나온 장재근의 밀어내기 결승투구에 힘입어 7-4로 승리했다.

잠실구장으로 옮겨 치러진 5차전은 김종모가 3안타3타점으로 맹활약한 해태가 5-2로 승리하며 1983시즌에 이어 V2를 달성했다.

해태는 마운드에서 '무등산 폭격기' 선동열, '제구력의 마술사' 차동철 그리고 김정수가 삼성의 강타선을 저지한데다, 타격에서는 서정환·한대화·김성현·김봉연·김종모·김준환·차영하·김무중·김일광·이순철·장재근 등이 맹타를 휘둘러 투타의 균형을 맞춰 난적 삼성을 4승1패로 제압하고 단기간 명승부사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다.

한국 시리즈 MVP는 4차례의 등판에서 3승을 거둔 진홍고-연세대를 거친 신인 좌완 김정수가 차지했다. 김정수는 해어 스타일이 이현세의 '공포의 외인구단' 주인공과 닮은 데다 거친 투구 스타일로 '가을 까치'란 전설의 신화를 창조했다.

1986시즌의 불멸의 스타는 다승(24), 방어율(0.99), 탈삼진(214) 등 3관왕에 오른 선동열(해태), 승률(0.826) 1위 재일동포 투수 최일언(OB), 칼날 같은 제구력으로 구원(35SP) 1위에 오른 김용우(MBC), 홈런(21), 타점(67), 장타율(0.514) 등 3관왕에 오른 김봉연(해태), 승리타점(16) 1위로 해결사 본능을 밝힌 한대화(해태) 그리고 2연승 포함 3회차 수위타자(0.329)에 오른 장효조(삼성) 등이 회상된다.



김재요 <조선이공대 교수·한국야구기록연구회장>



남현희 金 찔렸다  
 여자 플리레 월드컵 A급 대회

한국 펜싱의 '여제' 남현희(30·성남시청)가 올해 국제대회에서 첫 개인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세계랭킹 2위인 남현희는 8일(한국시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여자 플리레 월드컵 A급 대회 결승전에서 아이다 모하메드(헝가리)를 14-9로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다.  
 남현희는 준결승에서 세계랭킹 9위인 아이다 사나에바(러시아)를 제쳤고, 결승에서는 11위 모하메드를 만나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다. /연합뉴스

## 구자철·지동원·김보경 런던올림픽 예선 출전

**축구협 기술위 중재**  
 구자철(볼프스부르크), 김보경(세레소 오사카), 지동원(전남)이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위원장 이회택)의 중재에 따라 6월 예정된 2012년 런던 올림픽 남자축구 아시아지역 2차 예선에 출전하게 됐다.  
 축구협회 기술위원회는 9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선수 차출을 놓고 대립각을 세운 A대표팀과 올림픽대표팀의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1시간30여 분의 회의 끝에 기술위원회는 A대표팀과 올림픽대표팀에서 모두 뛸 수 있는 선수 가운데 홍정호(제주), 김영권(오미아), 윤빛가람(경남)에 대해서는 조광래 감독이 이끄는 A대표팀에서만 뛰도록 했다. 또 구자철, 김보경, 지동원은 6월1일 예정된 올림픽 대표팀의 오만 평가전에 참가하도록 했다.  
 특히 조 감독이 원하면 이들 세 선수는 A대표팀의 세르비아 평가전(6월3일)과 가나 평가전(6월7일)에도 나설 수 있도록 했다.

A대표팀 일정이 끝나면 구자철, 김보경, 지동원은 다시 올림픽대표팀에 합류해 6월 19일(홍)과 24일(원정)에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치러지는 요르단과의 올림픽 아시아지역 2차 예선에 출전한다.  
 이에 대해 조영중 축구협회 기술교육국장은 “이번 결정은 6월 일정에만 국한된다”고 말했다.  
 그는 “7월에 치러지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 조추첨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조 편성의 난이도에 따라 선수들의 차출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SINCE 1982

#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서울 종로점 OPEN**

**[국제보청기]**  
서울 종로점을 4월5일 개점하였습니다!

지방에서 보청기 사용중 불편사항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이연안과 옆))  
 충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중앙시장 앞))  
 목포점 061-262-9200